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협회 구성원 여러분께 밝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차봉석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이 되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협회 구성원 여러분께 밝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로서 풍요와 희망의 해라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에 많은 차질을 불러온 힘든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헌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각고면려의 노력으로 헤쳐 나와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건강보다는 호구지책이 먼저였던 1963년 협회를 설립하여 근로자 건강관리가 부재한 이 나라에 건강보호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산업보건 개념을 정부와 산업체에 인식시키는데에 첫발을 내딛었고, 더 나아가 오늘날 전국 의과대학의 직업환경의학 연구에 촉진제가 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체제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일반건강진단 기술을 연구·발전 시키기 위해 1987년 1월 일반건강진단협회를 발족시켰으며, 2002년 6월 직업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학술발전을 위해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창립하는데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협회의 사업 발전과정은 창립이래 제일 먼저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작업환경관리, 보건관리 대행 순서로, 항상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초 및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어디인지 온고지신하는 자세로 보이기에 더욱 노력하시길 기원합니다.

The oldest! 가 아닌 The highest!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세답족백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근로자를 위하는 그리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국의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원과 협회 소속 임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성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